

사설

상황과 환경에 연연치 말고 소신껏 충실히

바흐의 마태수난곡. 복음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다룬 종교 음악이다. 1729년 4월 15일 초연되었다. 그 후 까마득히 잊혀졌다. 그러다가 1829년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발굴되고 초연되었다. 멘델스존은 독일의 초기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다.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다. 지휘자이기도 했다. 바흐나 멘델스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음악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중·고교 시절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흐가 처음부터 대음악가로 추앙받은 것은 아니다. 대음악가 반열에 올라선 것은 사후인 19세기다. 그야말로 100여년이 지난 뒤다. 때문에 생전에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빠졌을 뿐이다. 장인의 정신으로 알아주든 않든 간에, 이게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아닐까.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여 년 뒤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중의 가슴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감동을 주면서.

요즘의 출썩거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복장 터져 죽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작금의 세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쪼그란 재능만 있어도 난리다. 안달이다. 타인이 보기엔 그저 풋내기일 뿐인데도, 감으로 말하면 겨우 6월 초순경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때는 뽕은맛도 제대로 들지 않을 시기다. 그런데도 매우 달다고 우겨대면 될까. 그야말로 공해가 아닐 수 없다. 예술계 쪽만 이러는 것은 아니다. 정치계도, 교육계도, 기타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 정치인들을 보바라. 참으로 가관이다. 철면피다. 자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이코패스다. 날마다 독설을 난무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이름을 너무도 많이 도용하는 것 같다. 자신의 하찮은 것은 침소봉대해도 타인의 재능은 아무리 높아도 물어버린다. 험뜯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갑남을녀도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가장 미움 받는 부류들은 정해져 있다. 제멋대로인 사람, 돈 버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사람, 화제가 직장 이야기밖에 없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등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도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는다. 철면피 스타일이다. 반면에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쪽인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생에 적극적인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는다. 험뜯지도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일에 몰두한다. 이런 부류의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고쳐나간다.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아하는다. “위대한 사람은 평론가가 아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가 될 어찌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그들이 아니다. 영광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의 몫이다. 앞서면 이길 것이요, 뒤지면 패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고 패배했다 해도 그는 담대하고 위대하게 진 것이다. 경기장 안에서 담대하게 뛰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미국의 26번째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말이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대학시절에 의사의 강력한 권고도 받았다. 조심조심 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았다. 곰 사냥을 즐기면서도 임신한 곰, 병약한 곰 등을 가려서 했다. 인간적인 면이다. 바흐처럼 소신껏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이다. 주어진 사명감을.

그러나 프란시스 베이컨(영국의 철학자)의 출세는 돈 물치를 뿌리는 그의 처세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당시 궁정에서 요청되었던 네 가지 기본적인 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기, 위선, 아첨, 그리고 철면피. 이것이 궁중의 은총을 얻는 네 가지 비결. 만일 이것이 싫거든 귀족도, 평민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권력자였던 이모부에게 베이컨이 보낸 편지가 있다. “설령 각하께서 저를 기용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모든 공직을 포기하고, 깊은 곳에 놓인 진리의 광맥을 뒤지는 참된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그는 진심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과연 그는 진리를 위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까? 그 속이여 어떻게든,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돈을 뿌려대던 베이컨은 결국 대법관이 된 지 3년 만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어떤 소송인에 의해 뇌물수수죄로 고소를 당한다. 의회로부터 소환되어 심문을 당할 때, 그는 수수(收受)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했다.

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다비'



출세의 달인-베이컨(3)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공직을 박탈당한 채, 템스 강 북쪽 기슭에 있는 런던탑(한 때는 감옥으로, 한때는 왕립 보물창고로도 사용됨. 지금은 박물관으로 관광명소가 되어 있음. 이 안에는 감옥으로 쓰이던 때의 고문기구나 단두대도 들어 있음)에 감금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재판관이 범정의 피고인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나쁜 관례 가운데 하나였다. 베이컨은 이 점에서 시대를 초월하지 못했다. 그러나 4일 후에 왕의 사면으로 석방되었고, 4만 파운드의 벌금도 면제받았다. 그렇다면, 당시 왕과 베이컨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밀월 관계가 왜 깨진 걸까? 고위관직에 오르면서 공공연하게 금품을 받아 챙겼던 베이컨은 그 무렵, 20여 건의 부패 혐의로 의회의 탄핵을 받고 기소당해 있었다. 그런데 마침 당시의 영국은 왕실과 의회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러므로 평소에 왕실의 특권을 앞장서 옹호해왔던 베이컨은 의회의 공격 목표가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왕 역시 더 이상 그를 보호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석방된 베이컨은 고향의 옛집으로 옮겨갔고, 이후로는 거의 두문불출하며 연

구와 저술에만 전념했다. 얼마 후에는 국왕으로부터 다시 정계에 복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정중히 사양하였다. 그러던 중, 1626년 3월 런던에서 하이게이트로 가는 길에서 '과연 고기를 눈(雪)속에 묻어두면, 얼마 동안이나 썩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는 즉시 어떤 농가에 들어가 닭 한 마리를 사서는 배를 가른 다음, 털을 뽑아서 눈 속에 묻었다. 그러는 동안 온몸에 피로와 오한이 몰려들었다. 그는 결국 가까운 아린델 경의 저택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65세 때였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실험은 훌륭한데 성공하였다!”고 기록하였으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글이 되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베이컨의 삶은 불우했다. 빛에 시달려야 했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상 이혼 상태가 되었으며,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갔다. 그가 남긴 재산은 7천 파운드였고, 빚은 2만2천 파운드였다. 유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았던 셈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

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

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음력 6월 6일)

 48년생 가래나 홍정 이심전심이 오고간다.60년생이품도 시련도 거든 허벌이내지.72년생 먼길 온손님과반기움을 나눠보자.84년생 웃음이 자주오.잔심만보여주자.96년생 마다할 이유 없는 제안을들어보자.	 49년생 부자된 기분 갖기도 낙낙해진다.61년생 끈기.와.오기에 달콤함 볼 수 있다.83년생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85년생 혼자인 의 고집 적을 만들어낸다.97년생 성공한 기대 갖것କୁ물마셔야한다.	 50년생 어부지리 이익 남도 보고.풍도.파자.62년생 게으른 자만반성문을 써야한다.74년생 부질없는 미련 기억에서 지워내자.86년생 가난이 막고 있던 꿈을 펼쳐내자.98년생 진짜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보자.
 51년생 자신했던 결과 물음표가 그려진다.63년생 하하 호호 웃음이 담장을 넘어간다.75년생 불평도 원망도 땅으로 묻어내자.87년생 상사.속고 결정 고만을 더해보자.99년생 다름을 인정하고 이별인사해보자.	 52년생 화려한 무대에서 기량을 뽐내보자.64년생 미루고 있는 계획 앞으로 당겨내자.76년생 허전한 가슴에 설움이 다가온다.88년생 행복이 라.쓰인 소식을들어보자.00년생 박치오르는 기쁨 만끽가 불려진다.	 53년생 도을 수 없는 처지 간섭도 금물이다.65년생 천군만마 지원군을 등에 업어보자.77년생 누구라는 이름 비싸게 불려진다.89년생 배부는 의심배가 되어 돌아온다.01년생 아들이 깨어나고 희망이 보여진다.
 54년생 서운한 대답에 주름이 깊어진다.66년생 배부른 장사.되로 주고 말로 받자.78년생 표현하지 못했던 속내를 꺼내보자.90년생 특별한 임무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02년생 착박한 조건에서 으뜸이 되어보자.	 55년생 명성에 누가 될까.매사 조심 하자.67년생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보자.79년생 급하고 비뚤면 배가 산으로 간다.91년생 미안.웃을 수 없는 축하를 받아보자.03년생 서러움이 남아도 차선을 가져오자.	 56년생 따뜻한 관심으로 주변을 돌아보자.68년생 이름다운 만남 그림으로 그려보자.80년생 사소한 질서도 반드시 지켜내자.92년생 인정.반 필요반.자감을 열어보자.04년생 온다.했던 약속.메아리가 되어간다.
 57년생 절반의 성공을 위안으로 삼아보자.69년생 무성개변한 세월 동침을 서두르자.81년생 보여지는 부분.포장을 더해보자.93년생 세모와 네모사이 중간을 지켜내자.05년생 뺄 있는 일침을 하리.속여 받아내자.	 58년생 혼하다.바라.내면.명을 찾아한다.70년생 원하던 목표가 손짓하며 반겨준다.82년생 남의 집.풍팔이도 열심히 해야한다.94년생 요란한 유혹에 실패를 알아내자.06년생 방황하던 초심.제자리로 돌아와.	 47년생 숫자 계산은 다시 보고 확인하자.59년생 자량도 정도껏.초라해 보여진다.71년생 찾아온 부탁에 울타리가 되어주자.83년생 어려서고 우직한 방법을 써야한다.95년생 엄지척.올리자는.친침을 들어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